

인천광역시립극단 2007년 공연실적 총괄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33건 / 68회			20,486명
2007. 4. 17(화) 인천실버타운	작은 행복으로의 초대 “년센스”	원작 / 단 고진 연출 / 이종훈 음악감독/홍윤희 안무 / 이지영 * 출연진 * 송정화 강주희 정순미 김문정 최지연 김용란(총진행) 조옥선(음향) * 스템 * 기획 : 김금식 고동희 이옥희	수녀들, 수상한 수작을 걸다 배꼽이 빠질 만큼 웃겨주는 기상천외한 수녀들이 등장했다. 원장 수녀를 비롯해 개성이 넘치는 다섯 명의 수녀들이 쏟아내는 요상하기만한 수다는 보는 이들을 얼떨떨하게 만든다. 마치 보따리 장사처럼 어디에든 자리를 잡으면 그녀들의 기상천외한 쇼가 벌어진다. 그 주인공은 인천시립극단이 찾아가는 공연으로 준비한 뮤지컬 <년센스>에 등장하는 수녀들이다. 시원한 웃음과 진한 감동을 함께 선사하는 <년센스>는 초연부터 열풍을 일으키며 21년째 계속 공연되는 화제작이다. 인천시립극단은 지난 1월과 2월 가창과 재즈 전문강습을 통해 뮤지컬 공연을 준비해왔으며, <년센스> 공연으로 관객들 앞에 선다. 이미 축제와 복지시설 등에서 초청이 줄을 잇고 있으며, 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상설공연도 갖는다. 단정하고 점잖은 수녀복을 입은 수녀들이 노래와 춤으로 무장하고,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관객들을 무한정 감동속으로 끌어들이는 뮤지컬 <년센스>. 인천시립극단의 여배우들이 그 웃음의 보따리를 푼다.	136명
2007. 4. 18(수) 예림원			200명	
2007. 4. 20(금) 인천구치소			150명	
2007. 4. 22(일) 학익사회복지센터			300명	
2007. 4. 24(화) 인정재활원			100명	
2007. 4. 25(수) 예림학교			199명	
2007. 4. 28(토) 야외공연장			350명	
2007. 4. 28(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년센스”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07. 4. 19 - 21 경기도 문화의 전당 소공연장 (3회)	공립극단 교류공연 “봄날”	<p>작 / 이강백 연출 / 이종훈</p> <p>* 출연진 *</p> <p>문용철 임홍식 정남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김현준 김성숙 (상임)</p>	<p>가슴 깊이 갈구하는 가족, 그리고 사랑</p> <p>「봄날」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쳐 가는 과정인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밀도 있게 형상화하여 인간의 순수한 심성인 사랑을 봄날처럼 따뜻하게 그리고 있다. 작품 속 등장인물과 계절의 흐름을 절묘하게 결합하여 세대간의 갈등과 대립, 용서와 화해를 수채화같이 그려낸 작품이다. 「봄날」은 부성(父性)과 모성(母性), 아비와 자식, 노년과 젊음, 소유와 박탈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봄날을 배경으로 따뜻하게 조명하며, 설화적 요소를 가미한 상징과 은유가 돋보이는 작품이다.</p> <p>「봄날」은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대립구조 안에서 소유욕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뿐만 아니라, 화해와 용서를 제시한다. 아버지의 욕심에 반기를 든 자식들이 마침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도망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를, 자식들을 서로 그리워하며 가슴 깊이 사랑을 갈구한다.</p> <p><줄거리></p>	660명
2007. 4. 27 - 5. 6 소공연장 (11회)	제45회 정기공연 “봄날”	<p>정 현 이영민 (객원)</p> <p>* 스텝 *</p> <p>조연출 / 손경희 무대미술/조은별 의상 / 황연희 조명 / 최형오 분장 / 박영화 사진 / 유재형 기획 / 김금식 고동희 이옥희</p>	<p>후미진 산마을에 늙은 할아버지와 일곱 명의 아들들이 밭을 갈며 살고 있다. 절대 권력자인 아버지, 어머니처럼 자상한 장남, 천식을 앓는 병약한 막내,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흑사당하는 걸 늘 못마땅하게 여기는 다섯 명의 자식들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어렵사리 살아간다.</p> <p>어느 봄날, 산불이 나자 절간의 스님들이 주워다 길렀던 동녀(童女)를 이 집에 맡기고 사라져 버린다. 늙은 할아버지는 젊어지기 위하여 이 동녀를 품고 자는데..... 동녀를 사모하는 막내는 피를 토하며 애통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p> <p>아버지의 학대에 시달리던 다섯 명의 자식들이 마침내 반기를 들고 농토의 분배를 요구하지만 욕심 많은 아버지가 들어줄 리 만무이다. 참다못한 자식들이 피를 써서 아버지 얼굴에 송진을 발라 눈을 못 뜨게 해놓고 향아리 속에 묻어둔 아버지의 돈을 나누어 가지고 도망쳐 버린다.</p> <p>여러 해를 지나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동녀는 막내의 지어미가 되어 아기를 배고, 아버지는 허황된 탐욕에 사로잡혔던 지난날을 탄식하며 떠나간 자식들을 그리워한다.</p>	917명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07. 5. 1(화) 은광학교	작은 행복으로의 초대 “년센스”	원작 / 단 고진 연출 / 이중훈 음악감독/홍윤희 안 무 / 이지영 * 출연진 * 송정화 강주희 정순미 김문정 최지연 김용란(총진행) 조옥선(음 향) * 스텝 * 기획 : 김금식 고동희 이옥희	<p>수녀들, 수상한 수작을 걸다</p> <p>배꼽이 빠질 만큼 웃겨주는 기상천외한 수녀들이 등장했다. 원장 수녀를 비롯해 개성이 넘치는 다섯 명의 수녀들이 쏟아내는 요상하기만한 수다는 보는 이들을 얼떨떨하게 만든다. 마치 보따리 장사처럼 어디에든 자리를 잡으면 그녀들의 기상천외한 쇼가 벌어진다.</p> <p>그 주인공은 인천시립극단이 찾아가는 공연으로 준비한 뮤지컬 <년센스>에 등장하는 수녀들이다. 시원한 웃음과 진한 감동을 함께 선사하는 <년센스>는 초연부터 열풍을 일으키며 21년째 계속 공연되는 화제작이다.</p> <p>인천시립극단은 지난 1월과 2월 가창과 제즈 전문강습을 통해 뮤지컬 공연을 준비해왔으며, <년센스> 공연으로 관객들 앞에 선다. 이미 축제와 복지시설 등에서 초청이 줄을 잇고 있으며, 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상설공연도 갖는다.</p> <p>단정하고 점잖은 수녀복을 입은 수녀들이 노래와 춤으로 무장하고,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관객들을 무한정 감동 속으로 끌어들이는 뮤지컬 <년센스>. 인천시립극단의 여배우들이 그 웃음의 보따리를 푼다.</p> <p><줄거리></p> <p>어느 날 수녀원에서 고기스프를 먹은 수녀 52명이 소시지 중독으로 죽는 엄청난 재난을 겪게 되자 원장 수녀는 기도 중 환상을 보게 되고, 죽은 수녀들의 장례기금 마련을 위한 카드 판매사업을 시작하지만 모자라는 4명의 장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무대쇼를 계획한다.</p> <p>그러나 자신만의 솔로 무대를 원하는 로버트 앤 수녀, 우연히 발견한 약병의 냄새를 맡아보다 이성을 잃게 되는 원장 수녀, 설상가상으로 보건당국이 냉동실의 시체들을 치우라는 경고가 전해진다.</p> <p>극이 끝날 즈음 엠네지아 수녀의 기억이 돌아오는데 그녀는 내기 경마에서 우승한 메리 폴 수녀였던 것이다. 수녀들은 필요한 돈이 다 마련되었음을 알고 기뻐하며 행복감으로 한껏 부풀어 오른다.</p>	110명
2007. 5. 3(목) 혜광학교				104명
2007. 5. 5(토) 송의동 성당				200명
2007. 5. 6(일) 연안동 성당				300명
2007. 5. 8(화) 인천기계공고				250명
2007. 5. 9(수) 인천기계공고				250명
2007. 5. 11(금) 인혜학교				344명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07. 5. 11 - 13 소공연장 (3회)</p>	<p>공립극단 교류공연 “미운 오리새끼”</p>	<p>예술감독/전무송 원작 / 안텔센 각색 / 아돌프 샤피로 연출 / 알렉산드로 꾸진 협력연출/정운봉</p> <p>* 출연진 *</p> <p>김미옥 한범희 이충우 한수경 심완준 현순철 박현숙 이태실 조은하 이찬우 김종철 류동철 안혁모 서창호 김길찬 임미정 윤상정 정정선 강혜련 강성해 양진춘 강상규 강아림 조은하 추연주 우정원</p> <p>특별출연 서강선</p> <p>* 스태프 *</p> <p>무대·의상디자인 /끼릴 다닐로프 통역 / 신대식, 지 철 무대 / 송관우 의상 / 손진숙 분장 / 배운정 안무 / 김한성 악기지도/ 서강선 무대감독/ 김영기 조명감독/ 박용환 음향감독/ 정주현 진행 / 김경아</p> <p>기획 : 김금식 고동희 이옥희</p>	<p>미운오리새끼 - 덴마크이야기</p> <p>인천시립극단이 추진한 공립극단 교류공연의 하나로 시도된 경기도립극단의 <미운 오리새끼>는 안테르센의 <미운오리새끼>를 모티브로 러시아 극작가 아돌프 샤피로가 대본을 쓰고, 러시아 중견연출가인 알렉산드르 세르게이비치 꾸진이 연출한 작품이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자아를 추구하며 희망을 찾아가는 미운 오리새끼를 통해 사랑과 자유,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한다. 획일화된 사회적 틀 속에서 개인에 대한 배려와 용기를 실현해나가는 가족애를 담아낸다.</p> <p><미운 오리새끼>는 어린이와 부모들 모두에게 완벽하게 전달된다. 사랑과 질투,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며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달한다.</p> <p><줄거리></p> <p>각종 새들이 살고 있는 뜰에 어미오리가 알을 품고 지루한 시간을 보낸다. 드디어 알에서 깨어 나온 새끼 오리들..... 정말 모두 오리들일까? 막내인 미운오리새끼를 둘러싼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생김새부터 모든 행동이 다른 막내는 현재자매들에게까지 따돌림을 당한다. 어미오리만 슬퍼하는 막내를 감싸준다.</p> <p>뜰의 우두머리격인 스페인부인이 막내를 개조시켜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자 막내는 보금자리인 뜰을 떠나 야생의 새들을 만난다. 그들은 막내에게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지만, 사냥꾼들에게 희생되고 만다.</p> <p>쫓기던 막내는 호숫가에서 비통함에 빠지는데, 이 때 한 백조를 만난다. 백조는 막내에게 함께 떠나자고 하지만 막내는 가족 때문에 갈등한다. 떠나겠다는 막내를 말리던 어미오리도 주위의 멸시와 냉대가 심해지자 막내에게 날아가라고 말한다. 결국 막내는 가족과 이별한다.</p> <p>따뜻한 봄날에 다시 돌아온 막내, 그리고 그의 아내 백조..... 어미오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막내는 모든 새들의 부러움과 환영을 받는다. 이제 뜰에는 평화가 찾아 왔다. 아빠오리가 등장하며 행복한 가족과 평화로운 세상이 열린다.</p>	<p>275명</p>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2007. 5. 16(수) 부천세종병원	작은 행복으로의 초대 “년센스”	원작 / 단 고진 연출 / 이중훈 음악감독/홍윤희 안 무 / 이지영 * 출연진 * 송정화 강주희 정순미 김문정 최지연 김용란(총진행) 조옥선(음 향)	<p>수녀들, 수상한 수작을 걸다</p> <p>배꼽이 빠질 만큼 웃겨주는 기상천외한 수녀들이 등장했다. 원장 수녀를 비롯해 개성이 넘치는 다섯 명의 수녀들이 쏟아내는 요상하기만한 수다는 보는 이들을 얼떨떨하게 만든다. 마치 보따리 장사처럼 어디에든 자리를 잡으면 그녀들의 기상천외한 쇼가 벌어진다.</p> <p>그 주인공은 인천시립극단이 찾아가는 공연으로 준비한 뮤지컬 <년센스>에 등장하는 수녀들이다. 시원한 웃음과 진한 감동을 함께 선사하는 <년센스>는 초연부터 열풍을 일으키며 21년째 계속 공연되는 화제작이다.</p> <p>인천시립극단은 지난 1월과 2월 가창과 재즈 전문강습을 통해 뮤지컬 공연을 준비해왔으며, <년센스> 공연으로 관객들 앞에 선다. 이미 축제와 복지시설 등에서 초청이 줄을 잇고 있으며, 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상설공연도 갖는다.</p> <p>단정하고 점잖은 수녀복을 입은 수녀들이 노래와 춤으로 무장하고,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관객들을 무한정 감동 속으로 끌어들이는 뮤지컬 <년센스>. 인천시립극단의 여배우들이 그 웃음의 보따리를 푼다.</p>	100명
2007. 5. 18(금) 연일학교				367명
2007. 5. 20(일) 간석 2동 성당				150명
2007. 5. 23(수) 남동장애인복지관				150명
2007. 5. 26(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년센스”			200명
2007. 6. 5(화) 안양 소녀원	작은 행복으로의 초대 “년센스”	* 스텝 * 기획 : 김금식 고동희 이옥희	<p><줄거리></p> <p>어느 날 수녀원에서 고기스프를 먹은 수녀 52명이 소시지 중독으로 죽는 엄청난 재난을 겪게 되자 원장 수녀는 기도 중 환상을 보게 되고, 죽은 수녀들의 장례기금 마련을 위한 카드 판매사업을 시작하지만 모자라는 4명의 장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무대쇼를 계획한다.</p> <p>그러나 자신만의 솔로 무대를 원하는 로버트 앤 수녀, 우연히 발견한 약병의 냄새를 맡아보다 이성을 잃게 되는 원장 수녀, 설상가상으로 보건당국이 냉동실의 시체들을 치우라는 경고가 전해진다.</p> <p>극이 끝날 즈음 엠네지아 수녀의 기억이 돌아오는데 그녀는 내기 경마에서 우승한 메리 폴 수녀였던 것이다. 수녀들은 필요한 돈이 다 마련되었음을 알고 기뻐하며 행복감으로 한껏 부풀어 오른다.</p>	150명
2007. 6. 19(화) 인혜학교				400명
2007. 6. 20(수) 인천학생 교육문화회관				400명
2007. 6. 23(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년센스”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07. 7. 13 - 22 야외공연장 (7회)	제46회 정기공연 “한여름 밤의 꿈”	<p>원작/셰익스피어 번안 / 홍창수 연출 / 이기도 예술감독/이중훈</p> <p>* 출연진*</p> <p>문용철 임홍식 김용란 정남철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송성화 강주희 강성숙 정순미 김문정 최지연 (상임) 이수정 김태현 강미혜 (비상임)</p> <p>이승영 오일영 조하석 이훈선 (객원)</p>	<p>한여름 밤의 꿈 & 신라의 달밤</p> <p>셰익스피어의 원작 <한여름 밤의 꿈>은 연인들의 사랑을 다룬 낭만희극으로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희극작품이다. 이 작품의 매력은 젊은이들이 사랑의 완성을 위해 용기 있게 법과 관습의 굴레를 넘어 끝내 아름다운 사랑을 완성한다는 점이다. 또한 요정들이 등장하는 동화적 환상과 희극적 세계의 상상력을 무한하게 확대시킨다.</p> <p>극작가 홍창수가 우리의 정서로 번안한 <신라의 달밤>은 고대 아테네를 배경으로 한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을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와 사고, 그리고 생활양식으로 옮겨 원작과는 또 다른 맛을 담아낸다. 원작의 시대적 배경인 아테네를 우리의 신라 시대로 가져와 아테네의 젊은 청년들을 신라의 화랑으로 대치시켰다. 또 서양의 요정들이 사는 숲의 세계는 우리에게 친숙한 도깨비들이 사는 옛날이야기 속 우리의 숲으로 바뀐다. 광대들의 막간극은 처용을 소재로 한 탈춤으로 변형하여 신명나는 놀이판을 벌인다.</p> <p>작품의 시대적, 공간적 배경을 원작과 달리 익숙한 우리 정서로 변형시켰지만 사랑을 위한 젊은이들의 방향과 간절함, 그리고 참사랑을 찾아가는 과정들은 시공간과 등장인물의 대치에도 변함없이 아름답게 그려진다.</p>	1,470명
2007. 7. 27 - 28 거창국제연극제 축제극장 (2회)	거창국제연극제 개막공연 “한여름 밤의 꿈”	<p>* 스텝 *</p> <p>무대미술/ 김준섭 조명/ 김창기 의상/ 김혜민 작창/ 이덕인 작장보/박고우리 분장/ 김수경 안무/ 박종진 조연출/ 성수진 악사/김현진 안형모 정송희 최태영 우민영</p> <p>기획/ 김금식 고동희 이옥희</p>	<p><줄거리></p> <p>화랑들의 기개가 하늘을 찌르는 신라시대. 피가 끊어 넘치는 젊은이들이지만 전쟁터에서의 싸움 못지않게 뜨거운 사랑도 불타오른다. 그러나 사랑은 늘 어그러짐이 생기게 마련이어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갈등을 낳는다.</p> <p>당대 최고의 화랑인 ‘문창’과 ‘미흘’은 모두 ‘수경’ 낭자를 사모하고, 수경은 문창을 연모하는 삼각관계를 이루는데 ‘옥향’이라는 남자가 미흘을 사랑하면서 젊은이들의 사랑은 복잡해진다. 게다가 이들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는 관습에 부딪히자 문창과 수경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성 밖으로 도망친다. 하지만 한밤중에 도망을 간 곳이 하필이면 도깨비들의 놀이터였고, 도깨비들의 싸움에 끼어드는 형국이 되면서 모든 게 거꾸로 바뀐 세상을 만나면서 온통 뒤죽박죽이 된다.</p> <p>혼란했던 한여름 밤이 꿈처럼 지나자, 젊은 연인들은 더욱 절실하고 참된 사랑을 확인하고 혼례를 통해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거둔다.</p>	2,000명
2007. 9. 22(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년센스”	시립극단원	수녀들, 수상한 수작을 걸다.	250명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07. 9. 22(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넌센스”	시립극단원	수녀들, 수상한 수작을 걸다.	300명
2007. 10. 5 - 7 대공연장 (4회)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창작뮤지컬 “바다의 문”	<p>작 / 홍원기 작곡 / 김선하 연출 / 이종훈 안무 / 국수호</p> <p>* 극단 출연진*</p> <p>문용철 임홍식 김용란 정남철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송정화 강주희 강성숙 정순미 김문정 최지연 이수정 (상임)</p> <p>김태현 강미혜 (비상임)</p> <p>이태원 박철호 방정식 (객원)</p>	<p>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상품</p> <p>인천시립예술단이 2천년전 미추홀로 불리던 인천의 역사를 무대에 살려낸 작품이다.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의 170여 단원이 참여하는 대형 창작뮤지컬 <바다의 문>은 내로라하는 스태프들과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 이태원과 박철호가 각각 소서노와 비류를 맡아 시립예술단 단원들과 호흡을 맞췄다.</p> <p>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를 경축하고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겨냥한 공연으로 인천의 역사를 현재로 되살려낸 창작뮤지컬 <바다의 문> 합동공연은 지난 2004년의 <심청왕후>에 이은 두 번째 창작뮤지컬로 4개 예술단의 장점을 하나로 엮은 역작이다. 또한 <바다의 문>을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내세워 높아진 인천문화예술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한 작품이다.</p> <p>인물들의 대사를 최소한으로 절제하고 노래와 춤, 무예로 드라마가 이루어진 <바다의 문>은 역동적이고 스펙터클한 진행으로 2시간여 동안 관객을 압도한다.</p> <p><줄거리></p> <p><바다의 문>은 주몽과 결별한 비류가 고구려를 떠나 무리들과 함께 수백 척의 배를 타고 미추홀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당시 비류는 미추홀에 비류백제를 세우고, 바다를 근거로 해양제국을 세우고자 했다. 그러나 육로를 통해 남하한 동생 온조가 위례성에 또 하나의 백제를 세우면서 두형제의 갈등이 시작된다.</p> <p>하나가 되라는 어머니 소서노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비류와 온조는 각자의 길을 선택한다. 비류는 내륙을 온조에게 양보하고 미추홀에 도움을 마련한다. 바다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기회이자 동시에 외세가 침탈하는 길이라는 걸 간파한 비류는 해양제국 건설을 위해 바다를 선점하고자 했다. 때문에 미추홀을 근거지로 삼아 바다의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개척한다. 비류가 배를 타고 떠난다. 드디어 바다의 문이 열린다.</p>	5,543명
2007. 10. 18(목) 인천학생 교육문화회관	작은 행복으로의 초대 “넌센스”	시립극단원	식중독으로 죽은 수녀들의 장례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섯 명의 수녀들이 벌이는 기발한 수작과 기상천외한 무대쇼! 뮤지컬 <넌센스>. 해학과 풍자를 통해 배꼽 빠지는 웃음 속에서 몽클한 감동에 빠져드는 코믹 뮤지컬. 수녀들이 벌이는 엉뚱발랄한 발상은 관객들을 매료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1986년 초연이후 20년 이상 장기공연 중인 세계적인 작품이다.	400명
2007. 10. 19(금) 부평문화사랑방			200명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07. 12. 21 - 30 소공연장 (12회)</p>	<p>제47회 정기공연 “크리스마스와 스크루지”</p>	<p>원작/찰스디킨스 번안 / 엄태경 연출 / 손경희 예술감독/이중훈</p> <p>* 출연진*</p> <p>문용철 임홍식 김용란 정남철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송정화 강주희 강성숙 정순미 김문정 최지연 이수정 (상임)</p> <p>김태현 강미혜 (비상임)</p> <p>손민목 박진선 김성규 윤원영 남관우 손수빈 정운우 김양욱 김예지 이재희 (객원)</p> <p>* 스태프 *</p> <p>조연출 / 채인석 무대미술/김효선 의상 / 손진숙 조명 / 공연화 음향 / 장태산 분장 / 박영화 사진 / 유재형 안무지도/박혜경 미술지도/이소림 소품제작/김유진</p> <p>기획 / 김금식 고동희 이옥희</p>	<p>우리 정서로 번안한 크리스마스 캐럴</p> <p>인천시립극단이 시즌별 레퍼토리 공연으로 준비한 연말 가족극 <크리스마스와 스크루지>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을 우리 정서로 번안한 작품이다.</p> <p>누구나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가족극으로 번안한 <크리스마스와 스크루지>는 원작의 배경을 오늘날의 우리 사회로 옮겨와 구두쇠인 스크루지를 사채업자 지 영감으로, 원작의 유령들은 삼신할매와 도깨비, 저승사자로 바꾸어 우리의 정서를 더했다.</p> <p>곳곳에 숨겨진 다양한 볼거리들도 <크리스마스와 스크루지>의 특징이다. 눈 깜빡할 사이에 옷자락에서 꽃이 피고, 빈 냄비에서는 과자가 쏟아지는 마술, 아기천사가 플룻으로 전하는 아름다운 캐럴 연주와 핸드벨의 하모니, 똥똥 떠다니는 커다란 비눗방울, 그리고 30여 년 전의 고고와 트위스트 춤이 무대와 객석을 행복한 크리스마스 축제로 이끈다.</p> <p><줄거리></p> <p>온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주고받으며 행복해 하는 크리스마스지만 탐욕스러운 지 영감에게는 사치일 뿐이다. 크리스마스에이브에도 사채원금과 이자를 받아오라고 다그치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함을 들고 온 홍마담과 봉씨를 매정하게 쫓아낸다.</p> <p>저녁이 되어 혼자가 된 지 영감에게 7년 전에 죽은 친구 양 영감이 누더기를 걸치고 찾아온다. 양 영감은 지 영감에게 인색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탐욕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이라며 세 번의 손님이 찾아오리라 경고한다.</p> <p>첫 번째로 지 영감을 찾아온 손님은 삼신할매다. 삼신할매는 순수한 동심과 사랑이 남아 있는 지 영감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로 끌고 가 지독한 노랭이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두 번째 손님인 도깨비는 소박하지만 정이 넘치는 지 영감 이웃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 세 번째 손님은 저승사자다. 저승사자는 죽은 이후의 처량한 지 영감을 보여준다.</p> <p>크리스마스 아침. 드디어 긴 악몽에서 깬 지 영감은 확 달라진 모습이다. 뒤늦게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을 내고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벌인다. 어리둥절해 하는 사람들 속에서 캐럴에 맞추어 지 영감이 춤을 춘다. 모든 이들에게 행복한 미소가 번진다.</p>	<p>3,461명</p>